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조선인민군

제19호 (루계 16740) 주체91 (2002)년 3월 6일 (수요일)

전군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

사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오늘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높이 드신 선군기치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드높은 각오와 신심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총대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것입니다.》

위대한 위업은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다. 주체혁명위업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는 숭고한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전인미답의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개척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을 벌려 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좌우명이며 열정을 바치신 신념을 쏟아 부은 숭고한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직후 당, 국가,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그 길에서 이룩하신 세기적인 업적은 참으로 전무후무한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은 진정 우리 인민모두에게 조국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존엄과 영예, 행복을 안겨 주신 위대한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전진시켜 오신 투쟁행로에는 언제나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부터 먼저 창건하시고 그 총대에 의거하여 당도 창건하고 정권도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군대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였으며 믿음직한 동지, 제1선 전투부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기에 주체혁명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오직 승리의 한길로 곧곧이 전진해 올수 있었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80여성상은 주체혁명위업을 위한 불멸의 생애와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한생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바치신 고귀한 생애와 이룩하신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60성상의 혁명력사는 수령님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계승의 혁명력사이며 걸출한 창조와 비약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신 탁월한 령도의 력사, 참다운 헌신의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력사의 풍랑을 헤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해 온 주체혁명위업의 로정에는 사상과 [illegible] 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선군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신분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고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여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서의 그 위력을 백배로 강화하신분도 김정일동지이시며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의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신분도 김정일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위인적풍모와 특출한 령도실력은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이룩하신 전무후무한 혁명업적으로 하여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이룩하시여 이 땅우에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였으며 그 어떤 변화를 바라는 적들에게 철추를 내리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이 더 높이 휘날리게 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총대철학에 기초한 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시고 선군혁명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밑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수호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돌파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마련되는 력사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열번도 더 주저 앉았을 엄혹한 시련속에서 우리가 일어 섰을뿐아니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의 ... 다. 총대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이 있고 혁명적군인정신만 있으면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고 강성대국건설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을 기어이 총대로 완성하시려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걸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장정은 주체혁명위업을 혁명의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사생결단의 영웅서사시로 빛나고 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철저히 관철되여 조국땅우에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온 나라에 인민군대의 혁명적투쟁정신,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확립되여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에 이어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사변이 일어나게 된 이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는 오늘의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사상도 령도도 인덕도 수령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님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기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인민군대의 최대의 사명과 본분도, 수령의 군대로서의 존재와 강화발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 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성 다해야 한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치리라는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장병들의 신념으로 되여야 한다. 일군들과 군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오직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 나가는 열혈충신이 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발현이다.

인민군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정치의 절대적인 신봉자, 관철자가 되며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총폭탄영웅이 되여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수령결사옹위의 맹세를 지켜 나가는 순결한 인간, 위급한 순간에는 목숨도 내대고 자폭자결도 서슴지 않는 오중흡형의 충신이 되여야 한다. 우리는 전군에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가 모든 분야에서 확고히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과업으로 여기고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관철하는 명령결사관철자,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 누구나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비상한 정력, 높은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김정일제일충신으로 값 높은 삶을 빛내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 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토대이며 귀중한 재보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으로 우리 혁명이 영광 빛나고 주체위업이 전진한다.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사상과 업적을 100% 계승하고 100% 구현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와 여러 혁명단계에서 이룩하신 업적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옹호하며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체의 건군사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이 철두철미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싸움준비완성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 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단위들이 싸움준비완성에서 전군의 앞장에 서야 한다.

모든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거세하고 훼손시키려는 온갖 현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사업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여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더욱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60성상에 걸쳐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더욱 빛내여 나감으로써 수령님의 력사와 업적이 이 땅우에 계속 빛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총대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혁명위업이자 강성대국건설위업이다.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이 있다.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는것은 인민군대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군인들은 전투정치훈련을 힘 있게 벌려 자신의 정치군사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공산주의적전투도덕적품성을 소유하며 당의 훈련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의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 무쇠 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고 강철 같은 군사규률이 선 일당백의 무적용사, 펄펄 나는 싸움군이 되여야 한다. 군인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며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임의의 시각에 쓸수 있게 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오안에 강철 같은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려 최정예화된 혁명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쳐 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높이 발휘한 전통을 계속 빛내여 나가야 한다. 모든 군인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강성대국위업의 수호자, 건설자로서의 영예를 떨쳐야 한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든든한 배심과 담력을 가지고 혁명적인 투쟁정신, 투쟁기풍, 생활기풍으로 인민들을 이끌어 혁명대오의 정예화, 강군화를 다그치고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전군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희세의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고 우리의 미래는 락관적이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을 벌려 조국광복을 이룩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다.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와 업적의 기념비들이 높이 솟아 빛나고 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자신의 필회의 모든 성원들을 무장시키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고 계신

받들어 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군력을 튼튼히 다져 주체혁명위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김정일동지와 영원히 혼연일체가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총대로 끝까지 이룩해 나가자.

현지보도

승리의 만세높이 《적》진으로

정현철소속구분대 전술훈련장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군인들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밑에 대적관념을 가지고 훈련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길게 누운 구분대전술훈련장에 군인들이 정렬해섰다.

위엄 있는 총대, 번뜩이는 눈빛…

훈련장에 나선 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원쑤격멸의 투지가 어려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훈련도 전투다!》… 군인들의 철석같은 의지를 말해 주듯 이런 글발들이 훈련장 곳곳에 나붙어 있다.

《나란잇, 차렷…》

훈련집행자의 담찬 구령소리. 이어 귀청을 째는듯 한 야무진 호각소리가 대기를 울린다.

군인들의 요소별 훈련이 진행된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분대장들의 구령소리 여기저기서 울린다.

약진 및 기기동작을 익히는 군인들, 외나무다리와 철조망을 극복하는 군인들,

황황 불길이 이는 눈, 으스러지게 다문 입… 누구의 얼굴을 보아도 멸적의 섬광 번뜩인다.

군인들의 훈련동작을 주의 깊게 살펴 보는 훈련집행자 길학진동무, 그의 눈길이 강문철소속분대 군인들에게서 멎는다.

《다시》, 《분대 공격출발진지로.》

맵짜게 울리는 훈련집행자의 반복구령.

《이 순간도 원쑤들은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반복훈련이 거듭된다.

젊은 군인들인 리성철, 김형봉동무들, 단김을 펄펄 날리며 한동작, 한동작을 품들여 완성해 간다. 병사들의 훈련동작을 바로 잡아 주며 부지런히 뛰여 다니는 분대장들인 강문철, 박영선동무들…

시간이 흐를수록 군인들의 전투동작은 눈에 띄게 완성되여 간다.

요소별 훈련으로부터 종합훈련으로 넘어 간 훈련장은 가렬한 싸움터를 방불케 한다.

《뚝계선후면에 〈적〉화점 발견.》

돌격선으로 진출하는 구분대앞에 떨어 진 정황이다. 전투서렬이 긴장해 진다.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의 마음도 초조해 진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어느 새 땅을 박차고 비호처럼 몸을 날린 리성철, 김형봉동무들이 불을 뿜는 《적》화점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다. 이어 울리는 《돌격앞으로—》의 구령, 산개대형이 《만세—》의 함성을 터치며 일제히 《적》 1참호에 돌입한다.

복수의 총탄이 작렬한다. 서리발총창이 노호한다.

순간 우리의 눈앞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원쑤들의 몰골이 보이는듯 싶다.

적파의 싸움에서 한몫할 병사들의 신념의 맹세인가 《만세》의 메아리 련련히 산발을 타고 울려 퍼진다.

승리한 고지우에 원수별 찬란히 빛나는 최고사령관기가 힘 있게 나붓긴다.

본사기자 정원문

높은 행군능력을

리광섭소속부대에서

민족의 최대경사가 겹친 올해를 자랑찬 훈련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떨쳐 나선 부대일군들과 군인들은 얼마전에 진행된 행군훈련판정에서 높은 행군능력을 과시했다.

행군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전과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부대일군들과 군인들은 신심에 넘쳐 행군훈련판정에 나섰다.

장도영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행군로정에 있을수 있는 자연장애와 각종 정황들을 예견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세웠다.

리정식, 현봉덕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화선식선동사업을 힘 있게 벌리기 위한 준비도 실속 있게 갖추었다.

드디여 행군훈련판정이 진행되였다.

여기서는 한동철소속구분대가 모범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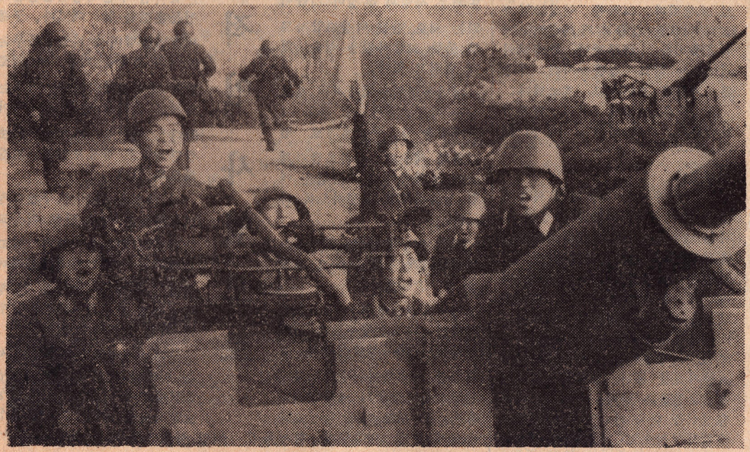
최운소속구분대 일군들과 군인들도 행군훈련판정을 잘 받았다.

구분대행군대오가 가장 험한 지대에 들어 섰을 때였다. 일부 젊은 군인들속에서 힘들어 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군들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다. 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전투정황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게 했다.

일군들은 시간이 흐르고 행군이 어려워 질수록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애의 미풍을 더욱 높이 발휘했다. 그들은 자기의 예비발싸개도 군인들의 발에 감아 주고 물도 그들에게 먼저 주면서 행군대오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부대안의 일군들과 군인들은 싸움의 그날에 돌격로의 앞장에서 달려 나갈수 있는 높은 행군능력을 과시했다.

특파기자 신동필



언제 어느 때든지 멸적의 포탄을 날릴수 있게 화력타무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최명남소속구분대에서—

본사기자 김유룡

단매에 족칠수 있게

오중흡7련대칭호를 받은 김상윤소속부대에서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며 무분별한 침략폭언을 줴치는 미제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안고 부대에서는 적들이 덤벼 든다면 단매에 족칠수 있도록 싸움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대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높아 지고 있으며 싸움준비완성에서도 번일 혁신이 일어 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싸움준비를 잘하여야 적들이 어느 때 쳐들어 와도 단매에 때려 부실수 있으며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관하구분대장들과 소대장들, 사관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싸움이 일어 나면 맡겨 진 전투임무를 능숙히 수행할수 있도록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김상윤, 김경윤, 조일환동무들을 비롯한 부대일군들은 관하지휘성원들과 사관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훈련을 조직했다. 그리고 직접 관하구분대들과 훈련장들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도와 주고 이끌어 주었다.

판정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으며 가치 있는 경험도 제때에 일반화하여 짧은 기간에 관하구분대장들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사관들을 최소비나는 싸움군으로 키워 가고 있다.

부대에서는 또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인 동원준비도 빈틈없이 해나갔다.

관하구분대들에 있는 땅크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따져 가며 즉시 출동할수 있는가를 알아보았으며 걸린 문제는 지체없이 풀어 나갔다. 그 과정에 필요한 전원도 원만하게 해결했으며 이동식시동기와 야간조명기재도 만들어 싸움준비완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임흥봉, 황봉길, 한광선, 김철희, 백인민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관하구분대들에 나가 살다싶이 하면서 싸움준비완성에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서 풀어 나갔으며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쳤다. 그리하여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인 동원준비도 훌륭하게 끝낼수 있게 되였고 진지의 싸움준비도 원만하게 완성할수 있었다.

부대에서는 일별, 주별 총화도 구체적으로 지어 모든 단위가 싸움준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 미제침략자들이 달려 들면 놈들을 단매에 족쳐 버릴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최인선

초병들의 고향소식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초병 리철우, 김시찬, 조의현, 강창연 동무들의 부모가 일하는 기업소

새 세기 첫 봉화가 타오른 영광의 단위답게 전국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월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 참모부에서는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주요생산공정들을 기술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면서 생산에 원료, 자재를 앞세워 보장하였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한 주강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극, 규소철, 파고철을 비롯한 장입재, 부원료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전기로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날마다 생산과제를 1.3배이상씩 넘쳐 수행하였다.

주물, 단조부문들에서도 유도로, 3t함마, 2000t프레스 등 설비들의 관리를 짜고 들고 공정들간의 긴밀한 련계밑에 소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갔다.

채탄기, 권양기, 콘베아직장 등 가공부문들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실속 있게 하면서 절삭공구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일정계획을 120%이상씩 수행하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세쌍둥이초병인 강일, 강당, 강백동무의 아버지가 반장으로 일하는 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강철전사들이 월강철생산계획을 101.2%로 수행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를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 안고 떨쳐 나선 이들은 계획수행기간 파고철, 전극, 무연탄 등 원료, 자재들을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면서 강철생산을 늘이였다.

강철직장 로동계급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전기로들의 관리를 실속 있게 하는 한편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우리 식의 용해방법을 받아 들여 종전보다 출강회수를 더 늘이고 날마다 계획을 1.2~1.3배로 수행하며 기세 좋게 전진하였다.

조강 1, 2, 열처리, 판종합직장들에서도 이달 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공화국영웅인 초병 박만철동무의 어머니인 로력영웅 진달숙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월철정광생산계획을 102%로 빛나게 수행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해놓았다.

로천분광산의 대형굴착기, 회전식착정기운전공들은 설비관리를 짜고 들어 하루실적을 전달에 비해 1.2배로 높이였으며 발파사업소의 발파공들과 운광사업소의 대형자동차운전사들은 발파회수를 늘이고 자동차의 가동률을 높여 날마다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선광부문의 로동자들도 마광기와 자선기를 알뜰히 관리하여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면서 정광품위를 더 높이였다.

철제일용공업련합회사에서

철제일용공업련합회사에서 월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였다.

회사일군들과 산하공장 로동계급은 자전거, 시계 등을 전문생산하는 공장들을 더 잘 꾸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기계설비들과 각종 장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꾸리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 뜨거운 마음을 안고 떨쳐 나선 모란봉시계공장(중대장 김통일동무의 아버지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첫달 생산을 잘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실속 있게 하는 한편 대중의 열의를 발동하여 월계획을 150%로 수행하였다.

함흥자전거공장, 평양자전거부속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어려운 조건을 이겨 내면서 1950년대의 불굴의 정신, 라남의 혁명적일본새로 생산을 내밀어 월계획을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이 땅에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불멸할 절세위인의 고귀한 업적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 올리신 그 업적이 있어 만민의 부러움속에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 가는 우리모두의 가슴속에는 수령님께서 이 땅에 제2해방의 날을 안아 오심으로써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 주시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 주신 불멸의 전승업적도 소중히 간직되여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중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자주성이 인간의 생명이라면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는 징표, 제일생명이다. 일생을 자주적으로 살아 나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자주성, 자주권을 짓밟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 없는 군사적위협과 도전을 각오해야 한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그것은 혁명과 반혁명, 정의와 반동간의 가장 심각한 정치, 군사적대결이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간고성과 엄혹성에 있어서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준엄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릴 목적으로 조선전쟁에 최신장비로 무장한 제놈들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은 물론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동원하여 방대한 유생력량을 들이밀었고 가장 야수적인 전쟁수단과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면서 놈들은 세계를 향하여 《조선에서의 전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다.》고 떠벌이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한사람같이 떨쳐 나 그처럼 호언장담하던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이 광복되어 불과 5년, 공화국이 창건되고 우리 혁명무력이 정규군으로 강화발전된지 겨우 2년밖에 안되는 우리 나라가 114차례의 침략전쟁에서 패전을 몰랐다는 강적 미제와 그 추구들을 때려 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만고의 전설적영웅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전쟁승리의 근본요인이였다.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있어서나 군대의 수와 무장장비에 있어서 너무도 현저한 차이를 이룬것으로 하여 그 누구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린 그날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시며 침략자들의 정수리에 멸적의 철추를 내리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세월의 흐름에 메아리되여 울리여 오는듯 싶다.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영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들과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여야 하겠습니다.》

적들의 불의의 공격에 즉시적인 결정적반공격으로!

실로 이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결심이고 견결한 반제반미투쟁선언이였으며 한발도 물러설줄 모르는 조선의 대답이였다.

동서고금의 전쟁력사는 아무리 강대한 군대와 커다란 경제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적들의 전면적인 불의의 침공을 받으면 혼란에 빠져 자기의 힘을 제때로 써보지 못하고 멸망하였거나 일정한 기간 어려운 시련을 겪다가야 전선을 수습하고 힘을 마련한 다음 비로소 반공격으로 넘어갔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기성의 군사리론이나 교범,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전혀 새로운 반공격전략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담력과 의지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찌기 항일대전의 그 나날에 일제의 백만대군을 때려 부신 그 영웅적기백으로 전쟁시작과 함께 침략자들에게 멸망의 선고를 내릴수 있었다.

수령님의 그 모습에서 전쟁의 승리를 신념으로 받아 들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께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갔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겪으시는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 나가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은 우리가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인적풍모를 더욱 뜨겁게 체험한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전쟁 3년간을 돌이켜 보노라면 우리의 뇌리에는 세계전쟁사의 기적으로 알려 진 작전과 전투들이 되새겨 진다.

어떻게 되어 우리는 전쟁개시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적들이 《불로의 섬》이라고 떠벌이던 금강의 방어진을 허물어 버린데 이어 미제의 《상승사단》을 통째로 괴멸시키고 놈들의 《림시수도》인 대전을 해방할수 있었는가. 과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전쟁이 개시된지 얼마 안되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남조선지역의 90%이상, 남조선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둘수 있었고 적들이 그처럼 요란하게 떠들던 《하기 및 추기공세》를 비롯한 거듭되는 대공세들을 여지없이 짓부시버릴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워 전쟁승리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고 전반적국가경제사업을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온 나라를 강위한 전투진영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하여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책에서 매일같이 밤을 지새우시였고 불비 쏟아 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어 인민군군인들에게 원쑤친 방략으로 밝혀 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면서 전쟁승리에로 불러 일으키시였다.

하기에 몇해전 태양절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빛나는 지혜산을 찾으시어 그때 수령님께서 지혜산에 나오시어 이 너럭바위우에서 주동적인 작전을 펼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1211고지사수는 물론 전쟁국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것이라는데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생각할 때마다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신전지명에 머리가 숙어 지군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산진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그날에도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제국주의강적들을 때려 부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실뿐아니라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위인이시라고,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위인.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빛나는 력사의 땅에서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그날의 말씀을 새겨 안으며 잊을수 없는 전화의 나날들을 돌이켜 보느라면 우리 수령님처럼 군대와 인민과 혈전만리, 불바다만리를 헤쳐 오신 위인은 없다는 생각이 뜨겁게 갈마든다.

우리 수령님께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고 헤쳐 오신 그 험난한 길을 떠나, 그 길에 바치신 수령님의 눈물겨운 로고와 헌신을 떠나 어떻게 위대한 전승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랴.

미제와 그 충실한 주구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인민들의 사기를 떨구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보려는 악랄한 모략책동의 일환으로 감히 우리 수령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갔다고 악선전을 할 때 동무들이 보는바와 같이 나는 여기 조선땅에 있다고, 내가 자기 나라 령토와 인민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고, 나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최고사령부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할 때 또 얼마나 준절하게 말씀하셨던가.

우리의 뒤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강을 건너서면 중국땅이다, 안전한 곳을 운운하는것은 적들의 허장성세에 겁을 먹고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진 자들의 얼 빠진 소리이다,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진 자들은 조국과 인민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후퇴하여 온것만 하여도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랑하는 조국땅과 인민들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

우리는 조상들의 유골이 묻혀 있고 수많은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는 사랑하는 조국땅을 두고 이국땅으로 갈수 없다, 우리는 한치도 물러 설 곳이 없으며 또 물러 서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새로운 반공격에 대하여서만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하였다. 일부 신념이 없는 자들이 제 한몸의 안전부터 생각하던 그때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는 언제나와 같이 조국과 인민이 있었다. 다시는 잃을수 없는 조국, 원쑤들의 손에 내맡길수 없는 인민이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준엄한 시각에도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조국과 인민과 생사를 같이 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저 눈물겨운 로고와 헌신을 전선길에 새겨 가시였다.

우리 수령님 헤쳐 오신 전선길이 어떤 길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하여 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풍을 씩운 수수한 군용승용차.

악랄하게 퍼붓는 적기들의 기총사격과 폭격으로 심장이 얼어 들고 사품치는 림진강철교의 침목을 하나하나 타고 넘던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로 이끌어 가는 이 력사적인 사적물앞에 섰노라면 사람들은 자신께서는 《정형고지》전투때 적후에서 적정자료를 보고받은 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동안은 머리를 1분 1초도 쉬운적이 없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이 가슴을 울려 눈굽을 적시군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전쟁 3년간을 이렇게 이어 오시였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마침내 이 땅에 전승의 날을 안아 오시였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은 미제의 항복도장이 찍혀 진 문건을 받아 드시고 환히 웃으시며 미제침략자들은 드디여 우리 조선인민앞에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놓았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 승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할것입니다고 뜻 깊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정녕 잊을수 없다.

그렇다. 그것은 력사의 기적이였다.

지난 날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영웅의 나라,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지구상에 높이 떠올린 민족사적사변이였으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 이긴다는것을 불변의 진리로 만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준 빛나는 승리였다.

인류가 낳은 위대한 군사의 천재를 높이 격찬하시며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이 누리를 진감시키며 메아리친다.

《우리 수령님은 지난 시기 명장들이 다 지닐수 없었던 출중한 기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종합적으로 체현하신 천출명장이십니다. 우리 수령님은 동서고금의 명장들이 지녔던 장점들을 다 지니고 계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십니다.

나는 수령님을 천출명장, 천하제일명장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 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열광적으로 터쳐 올린 승리의 만세의 함성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 높이 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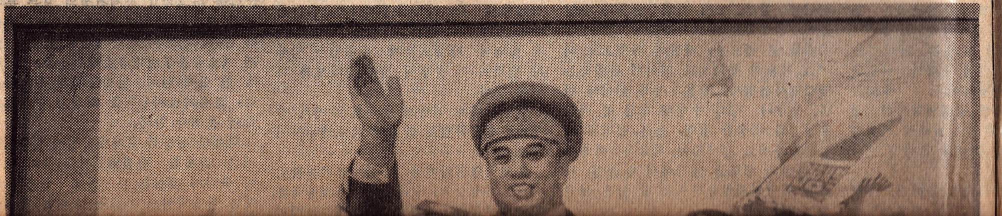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는다!

이것이 위대한 백두산의 장군, 절세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변의 의지이며 그이의 손길아래 강철로 다져 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백두산의 총대로 우리를 어째 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시는 오늘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결사옹위할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세세년년 길이길이 빛내여 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한 유 성



위훈에로 부르는 교양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정용전소속부대 정치부에서

부대지휘부와 관하단위 군인회관들에 가면 특색 있는 교양판을 보게 된다.

사회주의조국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면서 적간첩들과 불순적대

…을 조직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부대정치부에서는 이 교양판을 착상하였다.

정치부일군들인 정용전, 권성남동무들은 초소들에 내려 가 교양사

…떨쳐 나섰다. 박하신, 김홍길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먼 거리에 있는 관하단위들을 빠짐없이 누비면서 적간첩을 잡은 군관들과 사관, 병사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면서 적간첩과 불순적대분자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용감한 전투행동으로 체포하는 수가 늘어 났다.

군공을 세운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있는 정성수소속 구분대 군인들

본사기자 김유룡

을 기록한 교양판이다. 그 제목은 《간첩 잡은 전초병들을 열렬히 축하!》이다. 직관성과 문화성도 잘 보장되여 군인들의 눈길을 더 잘 끌고 있다. 이런 교양판들이 부대지휘부 군인회관과 관하부대 군인회관들의 홀과 복도들에 전시되여 있다. 그 실효는 대단히 크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인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잘 세워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시를 지침으로 삼고 사상교양사업 수행상 특성으로 하여 총소리 없는 격전을 매일 벌리는 조건에서 군인들이 용맹을 떨치도록 하자면 그들의 가슴이 위훈에 대한 열망으로 불 타게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부대정치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위훈속에 군인의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군공을 세운 군인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게 해야 한다. 여기서 직관성 있는 교양판을 택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이다.—

이렇게 협의한 정치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조직하였다. 분담을 맡은 정치부일군들은 일제히 … 은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면서 《간첩잡은 전초병들을 열렬히 축하!》라는 제목을 달고 문화성도 잘 보장된 교양판을 완성했다.

부대정치부에서는 관하 군관들과 군인들이 회의와 사업총화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지휘부에 올라올 때면 그 교양판을 돌아 보게 하고 그 감상을 발표하게도 하였다.

정치부에서는 관하부대들에서도 이런 형식의 교양판을 만들고 군인들의 가슴이 위훈에 대한 열망으로 끓어 번지게 하였다.

부대전초병들속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초소근무를 긴장하게 서 … 더욱 굳게 심어 주고 빛나는 군공을 세울 열망이 꽉 들어 차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부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교양판을 몸소 보아 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믿음을 더 깊이 새기고 부대지휘부에서는 《간첩 잡은 전초병들을 열렬히 축하!》라는 교양판을 더 만들고 잘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 있게 벌리고 있다. 하여 부대지휘부에는 이제 곧 또하나의 교양판이 전시되게 된다.

특파기자 심경일

《광명성찬가》를 가지고

김영순소속구분대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군인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실속 있게 벌리고 있다.

구분대정치지도원 김창록동무는 《광명성찬가》를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을 폭 넓고 깊이 있게 해설하도록 일군들에게 분공을 주었다.

얼마전 군인들이 교양실에 모였을 때였다. 일군인 허종남동무는 20세기의 태양이 21세기의 태양을 칭송한 《광명성찬가》는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태양숭배의 영원한 송가이라고 하면서 구절구절에 담겨 진 깊은 뜻을 감명 깊게 해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호성고 진천지》라고 칭송하신것처럼 온 세계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축원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문철, 차승철, 조정남동무들을 비롯한 군인들은 절세위인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살며 싸워가는 선군시대 병사의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의 총검을 더 억세게 벼려 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본사기자 황금식

권모술수에 속지 말라

세기에 빛나는 하루

주체90(2001)년 3월 4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간부들과 당원들속에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과 교훈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를 돌이켜 보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어려운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하여 나섰으며 국제정세가 복잡하였던 1960년대에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나타나 우리 당안에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을 부식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인민군대안에서도 김창봉, 허봉학이 같은 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로선과 일당백의 구호를 반대하면서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과 군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반석같이 다져 지고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일심단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 지금 우리 당안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없다고 하여 앞으로도 반당분자, 종파분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러므로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의 경험과 교훈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에 대하여서도 경각성을 높이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모든것을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해 보지 않고 그저 좋게만 보다가는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심중한 뜻이 담겨 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의 경험과 교훈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도록 하자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교활한 수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더러운 정치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무원칙하게 내세우면서 취주거나 위협공갈로 목을 뗐다가 슬슬 끌어 당기는 수법으로 규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이런 교활한 수법을 권모술수라는 말로 표현하시였다. 원래 권모술수라는 말은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면서 둘러 맞추는 모략이나 수단을 이르는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종파분자들의 악습을 집약한 말이라고 볼수 있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은 발언을 하나 하여도 거기에 담겨 진 정치적의미를 잘 알고 하여야 하며 아래일군들을 교양하여도 리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준엄한 혁명투쟁의 원리들을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헤아려 보시고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 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렇듯 심혈과 로고를 바쳐 이끌어 주시는 나날들이 있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일심단결은 날을 따라 더욱 굳세여 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룡연

탁상교양자료를 통한 위대성교양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자기 당과 자기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할 때 생기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

깊은 감동속에

장인재소속구분대 당조직에서

탁상교양자료에 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학습토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고조되였다.

탁상교양자료에 있는 《수령님께서 탄복하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격조높이 해설하는 사관장 김송희동무,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전쟁들에서 명성을 떨친 장군들을 만나보시였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큼 비상한 두뇌를 가진 장군은 없었다고, 비상한 두뇌는 비범한 지략을 낳기마련이라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당할 힘은 어디에도 없다고 감탄한 사실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속에 토론했다. 탁상교양자료의 《장군님의 휴식》에 대하여 토론하는 사관 김정순동무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일군들이 며칠만이라도 안정하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 올리자 자신께서는 문건을 보는것이 휴식이라고 하신 사실, 언제인가는 자신께서는 하루에 두세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문건을 보시며 일하신다는 내용을 목이 메여 토론하면서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군인들의 뜨거운 마음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로 끝없이 달려 가는 속에 문창근, 김경심동무들은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 《군인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등의 제목들을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그들은 탁상교양자료의 내용을 감동 깊게 해설하면서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자고 호소했다.

군인들은 감동에 겨워 열렬히 호응했다.

본사기자 박인철

계기를 잘 리용하여

전성호소속구분대 청년동맹초급단체에서

구분대청년동맹초급단체에서는 청년군인들속에서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를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벌리고 있다.

초급단체에서는 우선 초급일군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그들을 잘 준비시켰다. 그에 따라 한룡삼, 황현동무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청년군인들이 훈련을 앞두었을 때마다 교양실에 비치해놓은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에서 해당 훈련과 관련된 자료들을 뽑아서 구체적인 자료와 결부하여 교양카드를 품들여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그 교양카드를 가지고 훈련계기에 맞게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렸다.

어느 날 구분대청년군인들이 전술훈련을 할 때였다. 훈련정황은 복잡하고 조건은 매우 불리했다.

구분대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 리철식동무는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해설담화를 진행했다.

력량상 우세한 적들과의 싸움때마다 매번 적의 기도를 앞질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전투경험을 들으면서 청년군인들은 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 훈련에서 비상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칠 결의를 다졌다.

구분대청년동맹초급단체에서 실속 있게 진행하는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를 통한 교양을 통하여 청년군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다.

본사기자

일상적인 사업으로

박철호소속구분대 청년동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인들이 탁상교양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분대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군인들속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리고 있다.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를 통한 교양계획을 일, 주, 월별로 면밀하게 세우고 관하초급단체들에 포치하여 교양사업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분공을 주고 그들을 잘 움직였다.

청년동맹위원회 위원들인 박영진, 박경옥동무들은 정치상학이나 군사상학시간의 짬시간을 리용하여 《수령님께서 탄복하신 장군》, 《장군님의 휴식》 등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한제목씩 독보해 주고 구체적인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잘 해설해 주었다.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심화시켰다.

뿐만아니라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여러 공정과 계기를 리용하여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였다.

얼마전 구분대청년군인들이 전문훈련을 할 때였다. 구분대청년동맹비서 리원필동무는 훈련의 쉴참을 리용하여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에 나오는 첫째도 둘째도 총을 잘 쏴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매 초급단체별로 발표모임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구분대청년군인들은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의 내용을 환히 알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총대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구분대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군인들속에서 새로 만든 탁상교양자료를 통한 교양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계속 틀어 쥐고 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송청수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오중흡7련대칭호를 받은 리영남소속부대 당조직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 있게 벌려야 우리 혁명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 나갈수 있으며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의 친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습니다.》

오중흡7련대의 영예드높이 일군들과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투훈련과 싸움준비, 군사규률강화와 군인생활개선에서 끊임 없는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부대당조직의 사업에서 경험적인 몇가지 문제를 소개한다.

언제나 높은 자각을

부대당조직에서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결의목표들을 새롭게 수정보충하는것을 비롯하여 몇가지 사업을 포치한 얼마후였다. 부대관하 김동무가 속한 구분대에 내려 가 일군들과 군인들을 만나 담화도 하고 병영과 훈련장을 돌아 보는 정치위원의 마음은 그다지 개운치 못했다. 부대가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에는 알뜰하고 그다지 손색 없던 병영의 여기저기에 어설픈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고 규률생활에서도 이러저러한 빈틈이 엿보이고 있었던것이였다. 그런데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우리야 이젠…》하며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쟁취했으니 별로 크게 할 일이 없고 그저 현상유지나 하면 되는것으로 위안을 느끼는 일부 일군들의 태도였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그저 결의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깜빠니야적으로 와닥닥 해제껴 판정검열이나 잘 받아 영예를 쟁취하면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 운동은 군인대중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투력을 일당백으로 더욱 강화하여 부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친위대, 돌격대로 억세게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우리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오중흡7련대의 칭호를 받은 부대일수록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높은 사업실적으로 자랑찬 그 영예를 더욱 빛내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과 군인들 모두가 수령결사전위대오의 한 성원이라는 숭고한 그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로부터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군인들모두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업적이 깃든 부대,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쟁취한 부대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높은 자각을 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조직에서는 부대의 군인회관에 《부대에 깃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업적》, 《절세위인의 혁명실록》, 《만대에 길이 빛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라는 직관물을 게시하고 그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구체적인 계획밑에 활발히 벌리는 한편 부대의 실정에 맞게 교양사업을 방법론 있게 짜고 들었다.

이 사업에서 당조직이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일군들과 군인들이 부대가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던 그때의 일본새와 기풍,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를 늘 돌이켜 보며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게 한것이다. 그리하여 당조직의 계획에 따라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이룩한 성과》,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라는 내용의 직관물이 군인회관과 지휘부청사의 지적된 장소에 게시되여 일군들과 군인들의 눈길을 늘 끌게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또한 부대지휘부와 관하의 모든 단위 정치학습반들에서 제시된 학습문제와 자기들의 군무생활실천과 결부하여 《나는 오중흡7련대 지휘성원》, 《나는 오중흡7련대 대원》이라는 내용의 학습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교양사업을 부대의 실정과 군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더욱 심화시켰다. 여기에서 실효가 높은것은 오중흡7련대기발과 오중흡7련대영예휘장을 통한 교양이다.

부대가 어려운 행군길을 이어 가고 있던 어느 날이였다. 주민지대와 가까운 어느 한 지역에서 부대정치위원은 인민들로부터 뜻밖의 《신소》를 받게 되였다. 며칠전 그곳 마을의 한 집에 화재가 났는데 오중흡7련대영예휘장을 단 두 군인이 삼단 같은 불길속에 뛰여 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 내오고 집 재산들까지 꺼내오고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것이였다. 시급히 관하단위들에 포치하여 알아 보니 그들은 부대관하 문대룡소속구분대 사관 김용찬, 리형국동무들이였다.

당조직에서는 이 사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기동성 있게 포치했다. 행군출발을 다시 앞두고 전부대가 정렬했을 때 오중흡7련대기발이 세차게 펄럭이는 대오앞에 두 군인을 세우고 그 소행을 소개하는 정치위원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우리의 앞가슴에 빛나는 이 휘장을 그 어떤 멋이나 장식으로 여기지 말자, 수령결사옹위의 투사, 오중흡7련대의 대원이라는 고귀한 이 징표를 이들처럼 실천투쟁속에서 빛내여 가자.

대오는 우렁찬 함성으로 호응하며 힘차게 행군해 나갔다.

부대가 지닌 영예와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자각, 이것은 값 높은 실적을 낳게 하는 중요한 원천인것이다.

기발은 일군들이

기수가 달려야 기발이 휘날리고 그 기발을 따라 대오가 힘차게 전진하게 된다. 따라서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높은 사업실적으로 빛내여 나가자면 부대장과 정치위원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결의목표실현을 직접 틀어 쥐고 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야 하는것이다.

중대들을 항일의 7련대 4중대와 같이 만드는것은 부대가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빛내이기 위해 내세운 결의목표의 하나였다. 그런데 일부 중대들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업을 갓 시작한 일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자질이 그다지 시원치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부대장과 정치위원은 중대지휘관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고 강조나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갔다. 부대관하 백종권소속중대에 내려간 정치위원은 중대의 실정에 맞게 군인들에 대한 개별담화를 대상에 맞게 진행하는 방법, 교양실에 있는 교양판과 영예판, 탁상교양자료, 신문을 가지고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는 방식을 착상하고 실지 활용해 보았다. 실효가 높았다. 그리하여 그곳 중대에서 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들의 방식상학과 강습이 진행되였으며 따라서 이 사업을 계기로 그들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의 묘리를 더 잘 틔워 주게 되였다.

한편 부대장은 계은철소속중대를 비롯한 여러 중대들에 틀고 앉아 중대의 규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명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조직과 총화방식을 착상하고 널리 일반화했다. 이에 따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수준, 책임성과 역할은 한층 높아 졌으며 따라서 중대들을 항일의 7련대 4중대와 같이 만들기 위한 결의목표실현은 확실히 진척되여 나갔다.

책임일군들이 이처럼 단순한 투신이 아니라 실력이 안받침된 드세 손탁으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실속 있게 집행하며 기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는것이다.

당조직에서는 책임일군들속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학습과 분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결의목표실현과 관련하여 그들이 단계별로 해야 할 과제를 명백하게 찍어 주고 실적을 놓고 정상적으로 총화, 평가하는것을 제도화했다.

이런 사업은 책임일군들의 사업의욕을 한층 높여 주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패기 있게 벌려 나가게 되였다.

부대병영주변과 주둔지역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한 결의목표실현과 관련한 과업수행을 맡은 참모부책임일군 조영복동무의 사업이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여러가지 사업이 겹치고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묘목생산문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문제, 아카시아나무종자를 채취하고 그것을 심고 가꾸는 과학기술적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직접 틀어 쥐고 지휘하여 몇년사이에 부대병영과 주둔지역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일본새는 책임일군들인 홍지관, 최종호동무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였으며 그에 따라 땅크동원준비완성과 군인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결의목표실현은 힘 있게 다그쳐 지게 되였다.

이처럼 일군들이 옮기는 보폭의 길이와 속도에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것이다.

모두가 당당한 한 성원으로 될때

당조직의 계획에 따라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단계별 결의목표실현정형에 대한 판정을 진행한후였다. 최동무가 속한 구분대를 비롯하여 몇몇 단위들의 실적이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그런데 그곳 단위의 일부 일군들은 여러명의 일군들이 새로 배치되여 오고 갓 입대한 젊은 군인들도 있는 조건에서 별 도리가 없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최동무가 속한 구분대에서 판정을 하는 날에 직일근무, 식당근무를 모두 새빨간 평장을 단 젊은 군인들로 세우고도 그에 대해 지적하는 판정성원들에게 《머리와 몸만 가면 꼬리는 저절로 따라 서기마련이 아닌가》하는 일부 일군들의 잘못된 관점에 그 원인이 있었다.

군인들이 오중흡7련대칭호를 받은 부대에 배치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자격기준을 갖춘 오중흡7련대의 한 성원으로 자라는것은 결코 아니다. 부대안에서 피할수 없는 세대교체가 부단히 진행되는 조건에서 그들을 정치, 군사, 육체적으로 원만히 준비된 오중흡7련대의 당당한 성원으로 빨리 준비시키는것은 부대가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당조직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짜고 들었다.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군인들이 부대에 새로 배치되거나 입대하게 되면 부대지휘부와 군인회관을 돌아 보며 부대가 오중흡7련대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한 해설을 듣게 하는것을 제도화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중흡7련대칭호를 받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고 하루빨리 오중흡7련대의 한 성원으로 준비하려는 열의를 높여 주는 중요한 공정과 계기로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새로 배치된 일군들과 군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한편 그들이 하루빨리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오중흡7련대의 당당한 한 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 들었다.

당조직에서는 지휘부안의 부서들과 관하구분대들에서 새로 배치된 성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들에게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군사, 정치과업들을 명백하게 떨구어 주게 했다.

이에 근거하여 새로 온 성원들을 오중흡7련대 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부서, 관하구분대들에서 세워 지고 군무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이 이 문제해결에 복종되여 진행되여 나갔다.

그러면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부대관하 윤정호소속구분대의 사업을 살펴 보자. 구분대당조직에서는 새로 배치된 군인들에 대해 군관, 사관들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게 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성원들이 학습과 훈련에 정열적으로 참가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로 완전히 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일과생활의 여러 공정과 계기들을 리용하여 진행하는 위대성해설을 비롯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그들의 출연회수를 남들보다 높이게 했으며 군사동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개별지도를 착실히 짜고 들었다. 또한 새로 온 성원들의 결의목표실현정형을 따로 료해장악하여 그 성적이 월마다 진행하는 중대, 소대, 분대들의 훈련과 군사과업실적평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것은 군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게 했으며 따라서 이 사업에 분대, 소대, 중대가 떨쳐 나서고 군인대중모두가 끓게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이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한편 정치상학, 훈련, 공병작업, 판정 등 부대가 진행하는 군사정치사업의 모든 공정과 계기가 새로운 성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별 결의목표실현정형에 대한 판정총화사업을 실정에 맞게 잘 짜고 든것이다. 당조직에서는 판정날자, 판정내용, 판정방법 등을 한가지 틀로 고정시키지 않고 해당 단위가 수행하는 군사정치과업내용과 새로 배치된 군인들의 인원수에 맞게 정했다. 판정방법 하나만 보아도 군인들을 한곳에 모여 놓고 시험을 치거나 동작시켜 보는 고정격식화된 방법이 아니라 판정성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료해했고 새로 온 성원들은 별도로 만든 요강에 따라 실지능력을 구체적으로 판정했다.

이런 사업은 새로 온 성원들이 짧은 기간에 당당한 오중흡7련대의 한 성원으로 되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했으며 따라서 부대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사대로서의 성스러운 그 칭호를 값 높은 실적으로 더욱 빛내여 나갈수 있게 되였다.

부대가 오중흡7련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나가자면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새로 배치되는 일군들과 군인들을 오중흡7련대의 당당한 한 성원으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짜고 들어야 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인철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에 인민군장병들이 나무를 심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

무둑히 쌓아 주고 바람에 넘어 질세라 버팀대도 튼튼히 세워 주었으며 주변정리까지 말끔히 하

현지보도

훈련기준돌파

오중흡7련대칭호를 받은 황현길소속부대 반화학종합훈련장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투정치훈련을 힘 있게 벌리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

들이 방독면을 쓰고 각종 전투동작을 숙련하고 있다.

방독면을 썼기때문에 불편하겠지만 모두의 동작이 여유작작하다.

군들,

훈련장에 불바람이 인다.

대오의 앞장에는 부대장과 병종지휘관들이 서 있다.

얼마후 오염구역을 통과한 일군

새로운 관점과 일본새

○새 세기는 창조와 변혁, 혁신과 비약의 세기이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무력강화와 강성대국건설에서 혁명적 폭풍이 일어 나고 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일군들이 낡은 관념에서 벗어 나 새로운 관점과 일본새를 가지고 모든것을 발전적으로 보고 새롭게 지향해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습니다.》

식수절을 맞으며 인민무력부일군들과 장령, 군관들, 군사학교 학생들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에 나무를 심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해마다 이곳에 찾아 와 갖가지 나무들을 정성껏 심어 온 이들은 아침일찍부터 떨쳐 나 나무심기에 열정과 지성을 다 바치였다.

광복직후 잊을수 없는 그날 평양의 명승지 모란봉에 몸소 오르시여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 보시며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 주신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가슴깊이 새겨 안고 수목원에 달려온 일군들과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세계제일의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꾸려 주신 주체의 최고성지에 자기들의 불타는 마음을 깡그리 바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다.

그들은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산으로 번모시킬 크나큰 맹세를 삼가 아뢰이며 뜻 깊은 기념식수에 착수하였다.

인민무력부안의 일군들과 장령, 군관들은 식수에 필요한 작업도구들과 자재들을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추위에 얼세라 정성스레 떠온 수종이 좋은 잣나무들을 잔뿌리 하나 상하지 않게 정성 다해 심어 갔다.

그들은 귀중한 나무들의 사름률을 100% 보장하여 주체의 최고성지의 풍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돋구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기술적요구대로 구멍이를 파고 밑거름도 넉넉히 깔아 주었다. 또한 나무들을 심은 다음 보드라운 흙을 해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어 더 많은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도 인민군대가 앞장 설 불타는 마음을 자기들이 심는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에 깡그리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더 잘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뜻 깊은 식수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인민군장병들의 지성과 노력에 의하여 금수산지구는 보다 푸른 숲이 무성한 모습으로 전변될것이다.

글과 사진, 본사기자 김 명 수



모두가 떨쳐 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오제환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병영에는 빨리 자라는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병영이 나무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5월, 현지시찰의 길에서 박영범소속 3중3대혁명붉은기구분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병영주변에 나무들이 많다고 크게 만족해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중대에서 1만 3천여그루의 창성이깔나무모들을 키워 주변산들에 심고 200여개의 새집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 놓은것을 보면 군인들이 애국심이 높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부대일군들은 식수절을 맞으며 부대주변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조직했다.

부대에서는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박영범소속구분대에서 방식상학을 조직했다.

오제환, 황성일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병영에는 빨리 자라는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병영이 나무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해설하고 그 관철방도와 기술적요구에 대해 잘 알려 주었다.

리형관, 최상영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관하구분대들에 내려가 봄철식수사업을 실속 있게 이끌었다.

애국의 한마음을 불태우는 최금철소속구분대 일군들과 군인들은 부대의 양묘장에서 키운 분홍꽃아카시아, 창성이깔나무, 평양뽀뿌라나무를 비롯한 수천여그루의 키큰나무모들을 떠서 병영과 주변산에 심었다.

그들은 나무를 심을 구뎅이도 깊이 파고 거름과 물도 충분히 주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식수를 하였다.

리정남소속구분대 일군들과 군인들도 나무심기를 잘하고 있다.

일군들과 군인들은 키큰나무모들과 함께 잣나무, 살구나무, 추리나무들을 비롯한 과일나무들도 병영특화에 어울리게 정성껏 심었다.

그리고 나무 한대한대가 비바람에 상할세라 정성껏 가꾸고 있다.

그리하여 부대는 수만여그루의 나무들을 심어 조국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고 있다.

특파기자 신 동 필

요구입니다.》

불색연기가 타래쳐 오른다.

삽시에 골짜기가 연기속에 잠긴다.

바로 여기서 황원길소속부대 지휘부일군들이 반화학종합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대장이 인원점검을 한다.

근무성원들을 제외한 일군들모두가 참가했다. 참가률이 매우 높다.

이윽고 훈련이 시작된다.

오염구역에서의 동작, 제해소독 등 부분별 훈련이 조별로 진행된다.

농도 높게 조성한 오염구역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거기서는 일군가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지만 지체된 동작을 정확히 익히며 강한 의지를 키워 가는 김한춘, 손명국, 리광석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훈련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그 모습들에는 적들이 무모한 화학전을 벌린다면 놈들을 가차없이 소멸해 버릴 드팀없는 배심과 신심이 어려 있다.

교대별로 진행된 요소별 훈련이 끝나고 종합훈련이 진행된다.

첫 구역에서 정황을 받은 제1조가 출발했다.

불색연기가 더더욱 타래쳐 오른다.

그속에 설비된 요소별 훈련구역들을 기세차게 통과해 나가는 일한다.

방독면을 벗으면 얼마나 시원하련만 그럴 새가 없다.

제해소독구역이 앞에 있었던것이다.

누구라없이 마지막까지 긴장하게 훈련한다.

훈련을 한번 해도 결사옹위의 전투력을 다질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실전과 같이 훈련하는 일군들,

이들의 훈련과정을 주의깊게 살펴 보며 지도하던 웃단위 일군인 리창현동무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훈련기준을 돌파한것이다.

본사기자 리 운 섭

훈련집행을 책임적으로

임계범소속 해군구분대에서

당의 훈련방침을 높이 받들고 구분대에서는 훈련의 집행자들을 책임지게 잘 세워 나가고 있다.

훈련집행자인 임계범동무는 나의 훈련을 조직하고 집행해도 제장에 지체된대로 임의처 하였다.

정치, 규정, 대열, 체육을 비롯한 모든 과목의 훈련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지싸움에 써먹을수 있도록 정확히 조직하고 집행하였다.

특히 날씨가 불리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군사과업이 제기될 때에도 언제나 훈련을 첫 자리에 놓고 제정된 날자에 어김없이 훈련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임계범동무의 이런 기풍은 군인들로 하여금 훈련에 더욱 성실하게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였다.

리순남, 주충성동무들을 비롯한 사관들은 훈련집행자가 없을 때에도 자신들이 책임지고 훈련을 제시간에 정확히 집행했다.

이에 고무된 김성일, 김영진, 최광무동무들을 비롯한 군인들은 훈련에서 요령주의, 간략화를 몰랐으며 언제나 병사의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렇듯 구분대안에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훈련기풍이 차넘치고 있다. 특파기자

비약과 전진은 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일군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와야 모든 군사사업에서 근본적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높은 훈련성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린 권도일소속부대 일군들의 경험은 새로운 관점과 일본새를 가지고 주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군사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군들은 새 세기의 요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난 시기의 낡은 관념과 뒤떨어 진 사고방식에서 벗어 나 모든것을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혁신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적극 따라 배우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쉬임없이 이어 가시는 부대, 구분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은 새 세기 혁명적사업방법과 일본새의 가장 숭고한 귀감으로 된다.

최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의 경험은 무슨 사업이든지 한번 포치한 다음에는 현지에 나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군중의 의견도 들어 보아야 편향이 없이 밀고 나갈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일군들, 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며 기존경험과 틀에 구애되지 말고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 대상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사업을 일단 포치한 다음에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래에 내려 가 그 집행정형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군인대중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한다. 일군들은 실력이 있고 타산이 밝으며 손탁이 세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직무에 환히 정통하고 모든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깐깐하게 조직전개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안 경 석

높은 포화력지휘능력을

함룡철소속 포병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군인들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밑에 대적관념을 가지고 훈련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 올수록 부대포병들은 포화력지휘훈련을 더욱 힘 있게 벌리고 있다.

포병훈련을 강화하여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준비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마다에 새긴 부대일군들은 화력지휘훈련과제를 조금도 드티지 않고 있다.

일군들은 개별적으로 제시된 훈련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것과 함께 월 2차이상 진행하는 집체훈련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가하고 있다.

화력지휘훈련은 언제나 전투를 가상한 긴장한 정황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군들은 전투환경에서 부닥칠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멋따기를 비롯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있다.

유완용, 장세영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훈련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선 훈련방법을 대담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적들과 한번은 반드시 싸워야 하며 싸우면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는 멸적의 각오가 일군들의 심장마다에서 끓고 있다.

훈련참가자들은 한번의 훈련을 해도 적과 맞섰다는 높은 대적관념을 가지고 실전과 같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전투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짬시간에는 포사격교범통달과 계산문제풀이를 정열적으로 하여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부대에서는 훈련참가자들의 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훈련판정과 총화, 평가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더 높은 훈련기준을 제기하고 있다.

이 나날에 부대지휘성원들 모두가 자립적으로 옳은 명중사격방법을 선택하고 제원판정과 파렬감시, 화력이동 등을 능숙히 할수 있게 준비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부대 포병지휘성원들은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포화력지휘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훈련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다.

본사기자 전 원 문

방문기

수림화, 원림화된 병영

김인철소속 3대혁명붉은기구분대를 찾아서

며칠전 아침, 우리는 김인철소속 3대혁명붉은기구분대를 찾아 길을 떠났다. 우듬지에서 따스한 별이 아물거리는 울창한 숲, 그 밑에서 눈석임물이 피워 올리는 젖물 같은 안개… 봄의 정서가 흐르는 길을 따라 둔덕에 올라 서니 구분대병영이 한눈에 안겨 왔다.…

《…경리일이라 모두들 나무심기와 주변환경정리에 여념이 없답니다.》

우리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녀 가신 상학실, 교양실, 병실, 세목장을 돌아 보고 밖을 나섰을 때 동행한 구분대일군인 원영길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정말 그랬다. 이쪽 병실앞의 경사진 꽃밭에서 푸근푸근한 땅걸면을 긁어 주며 무엇이 좋은지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는 녀성군인들, 저쪽 큰 밤나무아래서 키 넘는 외줄기나무모들을 한아름씩 안고 오며 벙글거리는 군인들, 이쪽 운동장의 롱구장둘레에 나무 심을 구뎅이를 파는 군인들의 얼굴에도, 아름드리나무기둥에 사다리를 세워 놓고 올라 가 나무의 구새 먹은 곳에 세멘트를 발라 주는 군인들, 갖가지 모양의 알락달락한 새집들을 걸어 놓는 군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함뿍 어려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수절과 식수월간에 조직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이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긴 군인들은 아마도 지난해 부대지휘부를 찾으시고 병영안팎에 나무들이 많은데 대하여 그토록 만족해 하시던 최고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그려 보고 있으리라.

《어찌 그날의 영광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분대군인들은 올해 봄에도 많은 나무를 심자고 합니다.》

구분대정치지도원 김인철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군인들이 심고 있는 분홍꽃아카시아나무, 평양뽀뿌라나무, 수삼나무, 물황철나무들과 함께 뜻 깊은 올해 봄철을 계기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모두 2,000그루 심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병영안팎이 더욱 수림화된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감동을 금치 못했다.

야외훈련의 나날에도 짬짬이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을 생각을 했다는 정현철, 김철동무들을 비롯한 사관들, 한겨울의 추위에 나무모들이 얼세라 애지중지 관리해 왔다는 윤현철, 김수만소속소대 군인들…

이들만이 아니다. 해마다 봄이면 많은 나무를 심고 실하게 키우면서 병영안팎을 정든 고향집처럼 알뜰히 꾸려 온 구분대군인들 모두의 가슴속에서는 용암보다 더 뜨거운것이 끓어 넘치고 있었다.

정녕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존엄 높은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숭고한 뜻을 안고 사는 군인들이기에 그렇듯 불 타는 애국심으로 가슴 끓이며 나무를 정성들여 심고 가꾸는것이 아니겠는가. 분대장 최철웅동무는 말했다.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마다 보다 광휘로울 강성대국의 래일을 그려 봅니다. 그러면 천백배의 멸적의 힘이 온몸에 용솟음쳐 오르군 합니다.》

그렇다.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소중히 안아 키우며 우리 새 세기의 총쥔 군인들은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향을 목숨 바쳐 지켜 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벼린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 필승의 락관주의로 충만된 이 총대신념과 총대의지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격조높이 웨쳤다. 본사기자 박 용 수

《부쉬야말로 테로의 두목이고 악마의 화신이며 전쟁깡패이다》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부쉬행정부가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 제동을 거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리행을 차단시킨 부쉬행정부의 죄악백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자주통일의 리정표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대전환이 일어 났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화해에로, 랭전에서 평화에로, 분단에서 통일에로 큰 걸음을 내디게 되였다.

이것은 50여년 분단사에 일찌기 없었던 우리 민족사의 쾌거였으며 공동의 경사였다.

그러나 1년전 1월 20일 부쉬행정부의 등장으로 6.15공동선언의 리행에는 제동이 걸리고 북미대화와 함께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였으며 《한》반도에는 랭전의 기류가 다시금 밀려 들게 되였다.

그 주범인 부쉬는 워싱톤에서 《악의 축》이라는 독설로 불집을 만들어 놓고 전쟁화약내를 풍기고 있다.

우리 민중은 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부쉬를 《악의 왕초》로 규정하고 그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릴 반미, 반부쉬투쟁에 과감히 일떠서고 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온 민중, 온 겨레의 끓어 오르는 분노를 담아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앞길에 차단봉을 가로 질러 온 그의 집권 1년간의 죄악상을 고발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북미관계를 뒤집어 놓은 죄악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단사에 자주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통일좌표인 6.15공동선언이 리행되는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이 땅의 언론들이 쓴것처럼 미국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류보》(《조선일보》 2001년 6월 8일)해 왔으며 부쉬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을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놓기 시작》(《말》 2001년 7월) 했다.

내신들은 그 리유를 다음과 같이 까밝히고 있다.

《부쉬는 한반도에서 6.15공동선언으로 랭전체제가 해체되는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적을 만들고 위기의식을 높임으로써 방위산업계 친구들에게 약속한 무기판매를 합리화하고 부유한 공화당측근들이 재정적리익을 보호할수 있기때문이다》(《부산일보》 2001년 5월 3일), 《부쉬팀은 6.15공동선언이 통일로 이어지는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 로쪽에 치우치는 통일로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자기 세력권에서 벗어 날수 있다고 보고 있기때문이다》(《한겨레》 2001년 6월 12일)

그러므로 부쉬행정부는 출범하자부터 북미관계를 차단하는것으로 6.15공동선언리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동안 지속되여 오던 랭전체제가 일조에 해체되고 우리 민족앞에는 평화와 통일의 대로가 열릴것으로 기대되였다.

그러나 클린톤의 방북은 돌연 취소되였다.

그의 방북행을 가로 막아 나선것이 바로 부쉬와 그의 패거리들이였다.

부쉬는 2000년 12월 19일 클린톤과 정권인계인수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 《북미사이의 최대현안인 북한미싸일문제해결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강요하였으며 이보다 하루 앞서 상원원내총무와 하원 의장 등 11명의 공화당의원패거리들은 클린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무분별한 북한과의 협상타결은 없는것만 못하다》고 줴치면서 《방북취소》를 강박해 나섰다. (《동아일보》 2000년 12월 19일, 29일, 30일)

부쉬와 그 일당의 《북미정상회담뒤집기》작전으로 북미관계는 전면해결의 고비에서 적대적인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되였고 6.15공동선언으로 화해국면에로 들어 서게 되였던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로 환원하게 되였다.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의 핵문제는 《1993년의 녕변핵위기를 계기로 1년반동안의 공방끝에 체결된 제네바합의로 완결》 되였다. (《말》 2001년 7월)

그런데 출범하기전부터 《제네바

3월 15일)이라는 폭언을 련발하면서 기존의 관계개선지향적인 북미협상틀거리를 전면 뒤집어 엎었다.

내외여론은 부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신의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클린톤행정부때와는 다를것임을 밝힌 사실을 놓고 이것은 《선임행정부와는 달리 힘의 과시를 통한 리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강경정책에로의 선회에 무게를 둔것》(《한겨레》 2001년 3월 9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포웰국무장관은 백악관에 발을 들여 놓기 3일전인 지난해 1월 17일에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그 리행여부를 우리가 반드시 검증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미싸일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비재래식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측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것》(《조선일보》 2001년 1월 19일) 이라는 폭설을 뱉아 놓은바 있다.

그리고 부쉬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팀들은 앞을 다투어 《북과의 대화재개를 위해서는 대북감시 및 검증체제가 필요하다》 (포웰국무장관) 느니, 《북한과의 협상의제

에는 핵이나 미싸일외에 재래식무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라이스백악관안보보좌관) 느니 하면서 강경론을 폈다. (《한겨레》 2001년 12월 10일)

지난해 6월 6일 근 5개월간의 정책검토를 거쳐 발표된 부쉬의 대북정책성명은 이미 강경파들에 의해 거론되어 온 《핵과 미싸일, 재래식무기문제를 묶어서 협상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검증체제하에서만 대화를 재개》하겠다는것이며 이 《세가지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정치, 경제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것이다. (《한겨레》 2001년 6월 8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화거부성명이고 북미관계개선부정성명이였다.

워싱톤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성명은 《북과의 대화기피로 남북간의 대화를 막고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차단하는것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막기》 위한 하나의 요식성명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겠다는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2001년 6월 8일)

2. 남북화합을 차단해 온 죄악

부쉬행정부의 등장으로 하나로 이어져 가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되고 래왕과 상봉이 두절되게 되였다.

부쉬행정부는 미국과 《한국》간의 수직관계를 리용하여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 왔다. (《동아일보》 2001년 8월 2일)

남북대화가로막기

지난해 3월 7일에 부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신은 북한을 잘못 보고 있다》, 《북한은 믿을수 없다》(《뉴욕 타임스》 2001년 3월 8일), 《북의 핵개발과 미싸일문제에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다. 클린톤정권은 6년간 속아 왔다.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것이다》 (《신동아》 2001년 4월) 라는 위압적인 말로 김대중을 면박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사

도 없이 결렬되였다. 미국의 대테로전쟁이 남북대화의 발목을 다시 잡은것이다.》(《민족 21》 2002년 1월)

《이번에 한미련합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되고 군사적긴장이 다시 고조되게 된것때문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결렬되였다. 이번 비상경계령발동사태에서 드러난것은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 막고 있는 방해책동의 주범이 부쉬정권이라는 사실이다.》(《민》 2002년 1월)

남북협력가로막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내부문제이지 태양건너 미국이 끼여 들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부쉬행정부는 《미국은 상호주의와 검증을 원칙으로 북을 견제하면서 핵과 미싸일을 중단시키려 하는데 한국이 북한에 퍼주고 앞서나가면 공조가 되느냐》

년계획》기간에 무려 30조원의 혈세를 동족대결용무기구입비로 미군수산업복합체에 퍼넣기로 한 진짜퍼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는 부쉬의 사냥개노릇을 하고 있다.

남북래왕가로막기

부쉬행정부는 남북간의 래왕과 혈육간의 상봉까지 가로 막아 나섰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고 경의선은 우리 민족의 대동맥이다. 그런데 부쉬 같은 대양건너 깡패들이 나서서 금강산관광은 관광료가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가로 막아 나서고 경의선복원은 지뢰를 해제해야 하기때문에 《북의 전차(땅크)들이 쳐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

고 남북간의 접촉과 래왕은 《민족주의기류를 확산시킬수 있다》고 보면서 달가와 하지 않고 있다. (《산께이신붕》 2001년 2월 2일, 《민》 2001년 1월)

부쉬행정부가 이처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필사적으로 가로 막아 나서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몰아 가고 있는것은 《한》반도를 랭전의 기류속에 몰아 넣고 무기시장을 확대하여 심각한 불황에 처한 미국경제를 살려 내며 《한》반도를 군사적패권주의의 시험장으로 써먹으려는데 있다.

미국을 위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대화를 가로 막아 나서고 혈육간의 래왕과 상봉까지 차단하고 있는 부쉬야말로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까지 밴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3. 전쟁위기를 몰아 온 죄악

6.15공동선언으로 화해와 완화의 난류가 흐르던 《한》반도에는 부쉬행정부의 등장으로 랭전의 한류가 밀려 들게 되였다.

전쟁내각세우기

부쉬정권은 그 출신자체가 화약내 풍기는 《국방색정권》으로 생겨 나고 《전쟁내각》으로 등장했다.

만전쟁의 주범인 애비 죠지 부쉬를 빼여 닮은 주전론자인 부쉬는 백악관의 외교안보팀을 그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강경보수파일색으로 앉혔다.

부대통령과 국무장관, 안보보좌관에는 다 전임 부쉬행정부시절 각각 국방장관, 합참의장, 동유럽문제책임자로 있으면서 《만전쟁의 맹수》로, 《교살작전의 귀신》으로 악명 떨친 철저한 힘의 광신자들인 체이니, 포웰, 라이스를, 국방장관에는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기안한 포드행정부때의 국방장관 람스펠드를, 국무성 부장관에는 《페리보고서》에 대칭되는 보수적인 《아미타지보고서》를 제출했던 매파출신 아미타지를, 국방성 부장관에는 미싸일방위체계구축과 대북강경정책을 제창해 온 울포위쯔를 골라 앉혔다. 모두가 군부출신이고 주전론자들이며 대북강경파들이다.

《국방색정권》인 부쉬정권은 미싸일방위체계라는 도끼로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내리찍

을 벌려 놓고 《미싸일방위체계에 필요한 무기구매를 강박》(《한겨레》 2001년 6월 29일)하여 왔다.

이에 뒤이어 지난해 7월 미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쯔란 자는 《한반도에 공중레이자무기개발배치가 필요된다》고 공언하였으며 전태평양지역 미해군사령관이란 자는 《우리의 <제1주적>은 북한이다. 한국정부가 패트리오트미싸일을 사다 배치하면 그것이 바로 전역미싸일방위체계이다》라고 지껄여 댔다. (《경향신문》 2001년 7월 16일, 《민》 2001년 4월)

현실적으로 《한》미간에는 미싸일방위체계에 필요한 《패트리오트》와 《스탠다드》미싸일발사대를 비롯한 무기들과 부품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싸일방위체계준비를 위한 《한미군사협력체제가 가동되고 있》으며 미국방성은 앞으로 《2003년까지 북으로부터 20~50km 떨어 진 동해상에 요격미싸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미싸일방위체계 첫 시험무대를 동해로 선정》하는 구체적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제1라지오》 2001년 5월 10일)

오늘 미국과 일본, 《한국》은 다같이 심상치 않은 경제적침체속에 있다.

그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는

리기》는 《한국》언론들이 지적한것처럼 《북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겨 무방비상태로 만들어 놓고 힘들이지 않고 먹어 보겠다는 <북한죽이기론>》 (《말》 2001년 7월)이다.

부쉬행정부는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북에는 미싸일개발, 수출금지를 강박하면서 이남에는 2004년까지 사거리 300km 다련장 전술지대지미싸일 111기, 《패트리오트》 지대공미싸일들을 강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북에는 재래식무기감축을 강박하면서 이남에는 《공중사령탑》으로 불리우는 조기경보기, 공군 차기유도무기 《SAM—X》 2개 대대, 공군 차기전투기 《F—X》, 륙군 차기공격직승기 《AH—X》, 해군 이지스급구축함, 지휘직승기 《VH—X》, 무인정찰기 등 총 10조원에 이르는 무기들을 지난해부터 강매하고 있다. (《신동아》 2001년 4월)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는 구형아파치직승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는동시에 정찰용무인항공기, 팝아이미싸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사용된 《벙커버스터》 보다 더 강력한 갱도파괴신형무기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겨레》 2001년 12월 5일, 《조선일보》 2001년 5월 14일)

그리고 북침전에 대비한 새로운 《기동타격려단》을 금년까지 새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제1라지오》 2001년 5월 16일)

군사적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깡패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전쟁구실만들기

지난해 11월 26일 부쉬는 북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날 부쉬는 백안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개발과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 《그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대량파괴무기를 지원할 경우 테로범과 다를바 없으며 미국의 공격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제1라지오》 2001년 11월 27일)

기자회견이 끝나자 내외신들속에서는 탈리반붕괴이후 전쟁확대가능성이 적극 고조되는 시점에서 나온 그의 망언은 《북한에 보내는 압박용최후통첩》이라는 평들이 쏟아 져 나왔다.

씨나리오들을 연출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뉴욕 타임스》에는 《탈리반다음은 누구? 북조선을 잊지말라》라는 기사가 실리고 부쉬행정부의 호전광들속에서는 《다음의 반테로전의 목표는 북조선이 될수 있다》, 《광범위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 외교보다는 전쟁이 우선시될수 있다》는 전쟁폭언들이 꼬리를 물고 뱉아 지고 있다.

《대량파괴무기》 라는 선동적인 용어로 북침전쟁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북을 압박해 오던 부쉬호전광은 마침내 지난 1월 30일 《년두교서》에서 북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 이라는 악담을 줴쳤다.

이것은 《반테로확대전》 의 목표를 이북으로 공시한 북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였다.

원래 부쉬정권의 새로운 21세기 군사전략의 기본과녁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이북이였다.

부쉬행정부가 출범하자부터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위협》을 계속 눈덩이처럼 불궈가며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강도적요구를 내걸고 북을 압박해 온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중심으로 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문에 《반미전방보루》로 서 있는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것이였다.

《9.11사건》 후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북을 《반테로전쟁》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개시하자 《한》반도의 남쪽에 새로운 기동무력을 전진배치한것은 북침작전을 노린것이였고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승산이 보이자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거들고 나온것은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것이였으며 《악의 축》 폭언은 북침전쟁을 위한 도발적인 포고였다.

2월 19일 부쉬의 서울행각은 이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전에로 넘어 가기 위한 전쟁행각이다.

이것은 미국이 패권적세계전략을 위해 남과 북의 우리 민족모두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멸살하려는 대범죄전이다.

부쉬야말로 《테로》의 두목이고 악마의 화신이며 전쟁깡패이다.

*　　*

모든 사실은 부쉬행정부가 선임정권과는 다르게 《한》반도문제를 힘으로 락착 짓기로 했다는것을 실증하여 준다.

인이 지난해 10월24일자성명에서 지적한것처럼 《정권을 인계받기 바쁘게 모든것을 뒤집어 엎》(《민족 21》 2002년 1월)었다.

그것이 바로 《3대뒤집기》작전인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미협상뒤집기》 작전들이였다.

이 《3대뒤집기》 작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대사를 망치기 위한것이였다.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사이에는 2000년 10월 이북 특사의 방미와 알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방북에 뒤이어 클린톤의 평양방문이 예견되고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여 있었다. 여기에서는 북의 미싸일뿐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간의 완전한 관계개선문제를 일괄타결하기로 합의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6. 15공동선언이 마련되여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정상화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서는 55년지 못했다》(《동아일보》2001년 1월 18일)고 떠들어온 부쉬는 백악관에 들어 앉자 《북미기본합의문의 전면적재검토문제까지 끄집어 내여 그것을 백지화》(《뉴 코리아 타임스》 2001년 6월 23일) 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부쉬행정부는 북에 건설해 주기로 한 원자력발전소의 완공단계에 가서 북의 《핵사찰》을 하기로 된것을 당장 해야 하며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기때문에 화력발전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들고 나왔다.

이것은 내외여론이 지적한것처럼 《제네바합의를 뒤집기 위한 억지》(《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였다.

북미협상뒤집기

북은 미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자 북미관계발전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린톤정부때의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갈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쉬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재검토할것》(《경향신문》 2001년 고작 쉰다섯밖에 안되는 부쉬가 당년 76세난 김대중을 보고 《이 사람》, 《이 량반》하며 하대하고 경멸하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며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을 정치, 군사협상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까지 포함하여 단계마다 미국의 승인밑에 할것》을 강박했다.(《뉴 코리아 타임스》 2001년 5월 5일)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남북대화의 발목을 잡아 매놓기 위한것이였다. 남북간의 대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부쉬행정부는 《9. 11사건》을 계기로 남《한》당국을 《비상경계태세》에 들어 가게 하고 남쪽에 미국의 기동무력을 투입함으로써 남북간의 장관급회담을 단절시켜 버렸다.

《한국》의 언론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쉬행정부의 훼방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11월에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태세가 쟁점이 돼 아무런 결실부쉬행정부는 《남이 북에 전기를 주면 핵사찰카드를 잃어 버리기때문에 안된다》, 《386콤퓨터도 여러대 련결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수 있기때문에 안된다》, 《화학비료는 재래식폭약을 생산할수 있기때문에 안된다》, 《식량은 군량으로 들어 갈수 있기때문에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협력에 돌아 가며 《노》마지를 붙여 발목을 잡았다.(《동아일보》 2001년 1월 20일, 《민》 2001년 8월)

부쉬행정부는 지난 1월 2일 《2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관리규정을 수정해 중국, 로씨야, 인디아,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 대한 고성능콤퓨터수출은 완화하는 반면 북을 비롯한 〈테로지원국〉의 딱지를 붙여 놓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콤퓨터반출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부쉬행정부는 리회창을 비롯한 《한국》의 친미보수패거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대북퍼주기론》을 웨치게 했다.

이들은 지금 《군전력증강 5개《북은〈빨갱이정권〉이므로 붕괴시켜야 한다》고 지껄여 대고 있다.(《말》 2001년 7월)

주전론자들로 꾸려 진 부쉬정권의 세계전략은 한마디로 《대국주의적인 패권체제를 군사적으로 유지하겠다는것》(《기독교방송》 2002년 1월 4일) 이다. 부언하면 《일단 아프가니스탄전으로 시동이 걸린 전쟁정책을 지속시켜 전쟁국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패권을 쥐겠다는것》(《기독교방송》 2002년 1월 4일) 이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평정하고 이 세계를 〈힘센 자들의 쟝글세계〉로 만들겠다는것》(《한겨레》 2002년 1월 4일) 이다.

전쟁공조체제쌓기

부쉬정권이 《한》미관계기조로 삼고 있는 《한미공조체제》란 《한국》을 미싸일방위체계에 끌어 들이고 미일에 편입시키며 《반테로전》에 결박할것을 겨냥한 전쟁《공조》 체제이다.

이것을 위해 《한국》에는 포웰과 아미타지 등 미싸일방위체계관계자들이 련속 쓸어 들어 밀담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전파 우익보수정권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6. 15공동선언에 서명하고 《평화선언》이나 들고 다니는 《한국정권》이 고울리 없다.

지금 부쉬행정부가 《한국》의 우익보수세력을 밀어 주고 있는것은 《한국》에서 랭전기득권세력을 복귀시켜 전쟁체제를 만들어 내려는데 있다.

부쉬행정부는 《9. 11사건》이 일어 난후 《한국》에 《아프가니스탄전 파병》을 요구하였을뿐아니라 《미국의 〈반테로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강박》해 나섰다. (《제1라지오》 2001년 11월 15일)

이것은 《한국》을 미국의 전쟁수레바퀴에 얽어 매고 《한》미전쟁 《공조》 체제를 굳혀 나가기 위한것이였다.

전력증강달리기

부쉬행정부는 북에는 일방적인 무기감축을, 남에는 무기강매를 요구하는 이률배반적인 《전력증강달리기》에 나서고 있다. 부쉬의 이 《전력증강달리기》= 《전쟁달서 열린 《생물무기금지협약》국제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수주일안에 군사적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생물무기와 세균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국가》라고 비난하였다. (《제1라지오》 2001년 11월 20일)

이것은 지금까지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위한 명분용으로 써오던 북의 《핵문제》와 《미싸일문제》에 새로 《생물화학무기문제》까지 포함시켜 《대량파괴무기》라는 어마어마한 용어로 포장해 가지고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 써먹으려는 사전준비작업이였다.

부쉬의 대북최후통첩에 뒤이어 미국의 정보계는 《북한이 장거리미싸일을 수출하고 있다》느니, 《알 카에다가 북한과 이라크와 같은 테로지원국들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려 할지 모른다》느니, 《탄저균이 북한에서 생산된것일수 있다》느니 하는 여론조작으로 이북을 《테로》와 련결시키려는 6. 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이 땅에서 민족공멸을 가져 올 전쟁의 불꽃이 튕기는것을 방관시할수 없다.

바야흐로 반세기이상 미국때문에 민족분단의 재난속에서 민족자주권과 존엄을 짓밟히고 뼈와 살점을 뜯기우며 수난민으로 살아 온 우리 민중이 미국과 총 결산을 지을 때가 왔다.

우리 민중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함께 부쉬의 서울행각을 결사반대배격하는 거족적인 반미, 반부쉬투쟁에 분기하여 《악의 왕초》인 부쉬에게 준엄한 징벌을 내릴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이 기회에 《악의 제국》미국과 총 결산을 짓고 6. 15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이 땅에 자주, 평화, 통일을 안아 오려는 우리 민중의 정의의 투쟁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를 표시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 년 2월 13일 서울

재미난 골에서 범 나온다

보도에 의하면 미제의 전쟁괴수 부쉬가 《반테로전》을 위해 국회에 보다 많은 자금을 요청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측은 9. 11사건이후 미국방성에 이미 《반테로전》을 위한 보충자금으로 177억딸라를 할당하였다.

놈들이 현재 《반테로전》에 들이밀고 있는 비용은 월 평균 20여억딸라이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제는 《반테로전》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놈들이 새 세기의 첫 침략전쟁《성과》에 자만도취하여 그것을 세계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광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미제의 군사비증대는 불피코 침략과 전쟁책동의 강화에로 이어 지기마련이다.

부쉬는 제놈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반테로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것이라고 뇌까려댔다.

미제가 떠들어 대는 《반테로전》이란 《테로》를 빗대고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맞서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짓뭉개고 주요자원지대들과 전략적요충지들을 장악하여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간악한 흉계의 산물이다.

놈들의 총적움직임은 《반테로》를 거들며 침략전쟁의 불길을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여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달성하는데로 지향되고 있다.

미제가 《반테로전》에 더 많은 돈을 탕진하려 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전 부쉬는 세계적으로 《테로》를 종식시키기 위해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관계없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겠다고 하면서 그 우선권을 정밀무기와 고도기술로 장비된 지상부대조직 등에 부여할것이라고 떠벌여 댔다.

실제적으로 미제는 다음회계년도 군사예산초안을 현 회계년도보다 480억딸라나 늘어난 3,790억딸라로 정하였으며 그의 대부분을 침략전쟁수행의 직접적수행자인 륙해공군의 정찰장화와 첨단무기 및 장비구입에 돌리려 하고 있다.

한 외신은 이에 대하여 《반테로전》을 위한 미제의 책동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미제의 모험적인 《반테로전》비용증강책동은 놈들이 새로운 침략전쟁을 우리 공화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로 확대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그 실현에 발광하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큰 위험성을 띠고 있다.

최근 미제의 우두머리들이 《악의 축》이니 뭐니 하는 극단적인 망언들을 련이어 쾌쳐 대면서 반공화국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쉬에 이어 미제의 전쟁사환군들이 련속 남조선을 행각하려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반테로전》의 무대를 조선반도에로 옮기기 위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매우 무분별한 단계에 들입하였다.

재미난 골에서 범 나온다는 말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에서 침략전쟁의 재미를 본 미제는 조선반도에서도 그 재미를 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강약은 상대적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큰 소리만 치다가 때리면 때리는대로 얻어 맞고 부서져 나가는 약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천하무적의 강군이다.

우리의 총대는 침략자들에게 리끌만한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만일 미제가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한다면 침략자들은 뼈도 추리지 못할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쓰디쓴 참패를 당하게 될것이다.

한 귀 남

우주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로 씨 야 에 서

보도들에 의하면 최근 로씨야에서 우주과학분야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흐루니체브명칭우주과학생산쎈터를 돌아 보고 나라의 우주과학분야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언급하였다.

그는 우주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로씨야가 세계에서 자기의 립장을 유지할수 없을뿐아니라 나라의 방위력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4월 말에도 모스크바주의 우주비행사회관에서 한 연설에서 우주과학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주부문이 《국가발전의 관건적인 부문의 하나》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로씨야에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주과학분야에 특별한 힘을 돌리고 있다.

로씨야군수공업체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3~4년동안에 모스크바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현대화될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요격미싸일제한조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하겠다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취해지는 종합적인 대응책의 한 고리라고 한다.

로씨야국방성은 올해 우주군에 대한 투자를 늘이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2% 더 많은 자금이 우주군에 돌려 지게 되였다.

지금 우주군은 통신 및 항행위성제작사업에 대한 지출을 더 늘일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우주군은 군용통신위성들도 새롭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목적은 현재 하루에도 50개의 외국우주기구들이 로씨야령공을 수차례씩 비행하면서 정보수집과 정탐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응하려는것이라 한다.

우주를 통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기 위한 로씨야의 노력은 지난해 6월 1일 우주군을 창설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였으며 현재 로씨야는 우주군을 감시, 정찰, 정보지원을 위주로 하는 《보장군종》으로부터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작전군종》으로 발전시키는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씨야에서는 우주를 통하여 국방분야뿐아니라 나라의 다른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로씨야정부가 비준한 2005년까지의 련방우주계획에는 해마다 군사위성과 상업위성을 포함하여 30~40개의 위성을 발사하고 여러개의 민용우주기구를 쏴올릴데 대한 계획도 들어 있다 한다.

또한 로씨야정부 군수공업문제위원회는 민간위성통신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동안에 로씨야의 모든 민간통신 및 텔레비죤중계위성들을 교체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씨야국가회의 자연부원, 자연리용위원회는 나라의 많은 대상들과 자원들에 대한 새로운 련방우주감시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새 체계는 산림과 저수지들의 실태에 대하여 통보하게 되며 선박, 비행기, 기차 등의 운행을 감시하는 포괄적인 사업을 맡아 하게 된다.

한편 로씨야는 항공우주공업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가 항공우주기업소들을 국유화하는데 있다고 보고 현재 나라에 있는 106개의 우주회사와 324개의 항공회사들을 통합하여 국가소유의 우주종합체 18개와 항공종합체 17개를 창설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로씨야에서는 또한 청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지식을 주는 교육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주비행학과 우주무력》이라는 과학도서가 이미 발행되였고 세계우주백과사전의 발행준비가 끝나가고 있는 등 우주과학분야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대통령이 옳게 처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새 조선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3일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미국이 웰남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데 대하여 상기시키고 웰남전쟁과 관련된 력사의 갈피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의 현실에 주목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방송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최근에 《국제테로를 반대한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면서 질식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 이라크를 이른바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라크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은 벌써 이 나라를 공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항시적인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가능성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끝내 전쟁을 일으킨다면 웰남에서와 같은 교훈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조성된 오늘 현 미국대통령이 옳게 처신하는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는 경우 보다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원자력잠수함 일본에 기항

보도에 의하면 미원자력잠수함 《제퍼슨씨티》호가 2일 오전 일본 나가사끼현의 사세보항에 기항하였다.

미원자력잠수함들이 이 항에 기항한것은 지금까지 178회나 되며 올해에 들어 와 두번째이라고 한다.

미군함선들의 빈번한 기항은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